



책과 독서의 문화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 집약된 책과 독서에 관한 책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집적돼온 지식과 시대의 역사를 읽는 것이다. 책을 펼칠 때 책의 내용이 나 주제뿐 아니라 책 자체가 지닌 '오래된 기억'까지 우리 손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와 책을 주제로 다룬 책들을 살피는 일은 우리의 독서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책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이다.

책과 독서가 인간과 맺은 관계 밝히는 책들

《독서의 역사》(정명진, 세종서적)에서 알베르토 망구엘은 “독서 행위 그 자체처럼, 독서의 역사는 우리 당대로—나를 향해서, 그리고 독서가로서의 내 경험을 향해서—돌진해 왔다가 아득히 먼 세기의 첫 페이지로 되돌아간다”고 말한다. 이는 독서행위가 어떻게 독서의 역사까지 포함하는지 설명하는 말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문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해되는지 설명하고 소리 없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컨대, 묵독은 은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종교 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혼자만의 공부에 몰입해 새로운 사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깨어 있다는 표현인 동시에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는 일이었음을 지은이는 ‘금지된 책 읽기’ 부분에서도 밝히고 있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를 비롯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글읽기를 배운 것도 지배세력과 책읽기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서가에 꽃힌 책》(헨리 페트로스키, 정영목, 지호)은 책과 독서가 인간의 삶과 어떻게 관계 맺어왔는지에 대한 풍부한 답안이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일어난 책과 책꽂이, 그리고 독자

사이의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문화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거대한 문화사적 지식까지 이끌어내면서 지은이는 ‘현재 책꽂이에 꽃혀 있는 책이 바로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혀낸다.

《지상의 아름다운 책 한 권》(이광주, 한길아트)도 책 주변의 문화를 살핀다. 이 책은 중세 유럽의 사본문화에서 꽃핀 책의 출발부터 20세기 초 서적 제작의 명장 윌리엄 모리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책’의 역사와 책 문화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다. 지은이는 서구 역사 속에서 ‘책’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연구영역에 지적 호기심의 확대경을 들이댄다. 유장하면서 때로는 감칠맛 나는 아름다운 문장의 힘이 돋보이는 책이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책 바깥에서 책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 안에서 독자는 무한히 흔들리며 새로워지는 의미 생산자가 된다고 그의 텍스트 이론에서 말했다. 조금 비약하자면 책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와서 비로소 새로워지며 완성된다는 말일 터이다. 독자가 책의 진정한 의미생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 에밀 파게가 지은 《독서술》(이휘영, 서문당)과 모티머 J. 에들러의 《독서의 기술》(임병덕, 범우사)은 이런 독서의 방법론을 기술한 책이다.

1923년에 출간된 에밀 파게의 《독서술》은 시,

소설, 희곡, 논문 등 책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파게는 우선 ‘천천히 읽기’를 권하며, 독서의 적은 자존심, 겁, 열정, 비평의 기질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거듭 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대한 작품들과의 사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은이는 독서를 지식 획득의 방편으로 보기보다는 정신적 쾌락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독서의 기술》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줄 만한 책을 고르는 안목과 이른바 명저들을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은이가 가르쳐주는 책 읽는 방법은 모두 4단계의 수준으로 나뉜다. ‘초급독서’ ‘점검독서’ ‘분석독서’ ‘신토피칼(Syntopical) 독서’가 그것. 독자가 최종 단계인 ‘신토피칼 독서’에 이르면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종의 책을 함께 읽고 지은이가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고은외, 민음사)에는 고은, 김우창, 유종호, 이강숙 등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풍부한 책읽기 경험이 담겨 있다. 책이 어떻게 개인을 변화시켜 사회변화까지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밖에 브뤼노 브라셀의 《책의 역사》(권명희, 시공사), 볼프강 이저의 《독서행위》(이유선, 신원문화사), 로저 샤희의 《금지된 지식》(조한욱, 금호문화) 등도 책과 독서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근 기자